



# OVERWATCH™



YOSUNG  
-2017-  
Egy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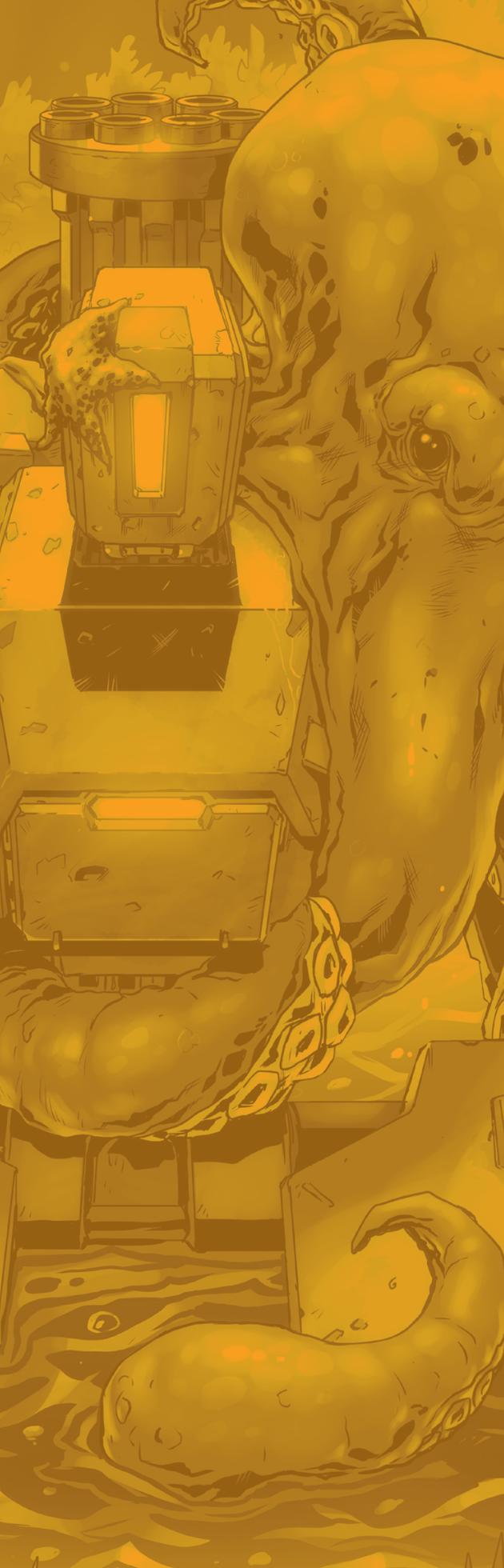
## 바이너리

MATT  
**BURNS**

JAMES  
**WAUGH**

JOE  
**NG**

ESPE  
**GRUNDETJERN**



OVERWATCH™

# 바이너리

**MATT BURNS** 글  
**JAMES WAUGH**

**HYANG JUNG** 번역

**JOE NG** 그림

**ESPEN GRUNDETJERN** 채색

**JIHYE SOPHIA HONG** 식자

**CATE GARY** 선임 편집자

**ROBERT SIMPSON** 퍼블리싱 수석 편집자

**JOE NG** 표지  
**ESPEN GRUNDETJERN**

**JOHN J. HILL** 그래픽 디자이너

**MICHAEL CHU** 크리에이티브 자문  
**JEFF KAPLAN**  
**ARNOLD TSANG**  
**BILL PETRAS**

**SEAN COPELAND** 세계관 자문  
**JUSTIN PARKER**

**DEREK DUKE** 프로듀서  
**ADAM GERSHOWITZ**  
**CAROLINE HERNÁNDEZ**  
**BRIANNE LOFTIS**  
**JOEL TRUBEL**  
**RYAN THOMPSON**  
**JEFFREY WONG**

**BYRON PARNELL** 글로벌 라이선싱 선임 매니저

이쪽이야,  
이쪽...

우릴 찾으러  
올 거야.



너무  
걱정하지 마,  
리암.  
긍정적으로  
생각하라고!



크슈

무슨 소리지?  
그것 봐. 이걸  
아니라니까.



크슈우우우

으아아아!



바스티온이야!!!  
바스티온!!!

도망쳐!



**BASTION PÅ RYMMEN? ELLER ÄNNU ETT FALSKT LARM?**



\* 바스티온이 활보 중인가? 아니면 이번에도 착각인가?

**FÖRÄLSKADE TONÅRINGAR MÖTER DÖDSMASKIN!**



\* 10대 연인, 죽음의 기계와 조우하다!

**TIDIGARE TERROR TILLBAKA!**



\* 과거의 공포 다시 돌아왔다!

군이 농장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 보도들이 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!

이 괴물을 처리하는 데 군의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. 우리에게겐 소총이 있으니, 직접 놈들을 처치하고-

소총이라고? 흥! 차라리 돌맹이를 던지지 그래?

누구시죠?

나다...

당신네들  
대신 이 괴물을  
처리해 줄  
사람이지.

이건 SST 연구실의  
E54 바스티온이야.  
진짜 골치 아픈  
놈이지.

옴닉 사태 때는 세계  
최고의 군대조차도  
이놈들을 처리하느라  
애먹었다고.

그렇다면 당신이 이걸  
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 
이유는 뭡니까?  
난 이 녀석을  
속속들이 알거든.

싸워 본 적이  
있습니까?

그런 셈이지.

이 바스티온은  
여러 번 목격되었지만,  
아직 사람을  
공격하지 않았어.

그렇다는 건,  
손상됐다는 뜻이지.  
자가 수리 기능도  
영망이 됐을 테고.  
망가진 로봇이라면  
내 전문이지.

며칠이면 돼.  
당신들은 안전하게  
여기 있으라고.



시간이 조금 흐른 후...

시내에 있으라고  
했을 텐데. 보모는  
필요 없어.

일을 원칙대로  
진행하는지  
지켜보러 왔을  
뿐입니다.

하. 날 못  
믿겠다는  
건가?

제가  
조사를 좀 했죠.  
바스티온 개발에  
일조하셨더군요.  
전쟁 전에  
말입니다.



계속 그렇게 붙어  
다닐 거면 입 다물어.  
포탑을 설치했어.  
미끼를 깬 셈이지.

그건 뒤에 쓰는  
겁니까?

싹! 온다.

**철렁  
철렁  
철렁**



옳지. 조금만 더 가까이 오거라, 고철 덩어리아.



쟈쟈쟈

저 새가 뭘 하는 거지?



쟈쟈쟈  
쟈쟈쟈

미끼 작전은 물 건너 갔군요...



투투투  
투투투투



쳇, 겁을 먹고 가 버렸군요!

설마. 바스티온은 달아나지 않아.



적응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더 똑똑해지면서요. 역시 경찰력을 투입해서 끝장을 내야겠습니다.

저 살인 기계를 쫓아가면, 자기 무덤 파는 꼴밖에 안 돼.

깡통이 달아난다니  
금시초문이군.

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 
전원이 끊길 때까지 싸우도록  
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.

뭔가 잘못됐어.

재깡재깡

언제 프로토콜이 정상 가동할지  
몰라. 그럼 사람을 죽이겠지.

그냥 포탑으로 쫓아 버리는  
정도로는 안 되겠군.

이게 뭐-



네놈이 무슨 수작을 부려도 난 안 속아.



난 네 정체를 알아. 네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안다고.



자! 덤벼라! 네게 깔린 프로그램에 복종하라고!



넌.



지이잉. 우우우웅.



넌 좀 다르구나..



자아자아자아

삐이이익?



폭발 폭발 폭발



그만 씹!  
그만 씹!



멍청이들! 날 죽이려는 거야?

그보다는 구하려는 거죠. 저 바스티온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.



날 공격하려 하지 않았어. 그 바스티온... 그 녀석은...

이봐. 작전을 중지해야 돼.

그놈이 시내로 와서 우리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르는데요? 미쳤습니까?



